

◆ 캐나다 EDC의 4월 업무동향

인도 뉴델리에 현지사무소 설치

지난 4월 EDC는 최근 증가세에 있는 인도-캐나다 간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베이징, 쿠알라룸푸르에 이은 세 번째 사무소이며, 이번 사무소 개소는 EDC의 BRICs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공략 의지를 보여준다. EDC는 이미 러시아를 제외한 중국 베이징, 브라질 상파울루 및 리우 데자네이루에 현지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8%였으며 최근 교통과 통신, 발전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EDC의 대 인도 주요 지원 분야는 정보통신, 발전, 하이테크 등으로 지원건수는 129건, 총 6억 1,120만 캐나다 달러였다. 그러나 이는 2004년 EDC 총 지원액 549억 캐나다 달러의 1%를 조금 넘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인도는 캐나다의 수출대상국 17위인 반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아 만성적인 무역적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DC는 향후 인도와의 무역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뉴델리 사무소를 기반으로 인도 구매자, 정부 기관, 금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시장에 캐나다의

유망 수출 분야인 하이테크, 정보통신, 석유 및 가스, 환경부문, 산림, 광물, 항공기 등의 수출을 적극 증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Bank Turan Alem(BTA)와 3,000만 캐나다 달러 전대계약 체결

EDC는 지난달 8일 카자흐스탄의 BTA와 3,000만 캐나다 달러의 전대금융 계약을 체결했다. 그간 EDC는 양국간 무역촉진을 위해 캐나다 수출기업이 받은 BTA의 1년 미만 신용장에 대하여 단기수출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캐나다 상업금융기관의 수출기업 앞원활한 자금 대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정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간 무역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2003년 3,847만 캐나다 달러였던 대 카자흐스탄 수출은 지난해 9,400만 캐나다 달러로 약 2배 증가했다.

카자흐스탄은 캐나다의 중앙아시아 수출의 거점 국가이며, 특히 양국간 무역수요는 캐나다가 경쟁력을 가진 농업기계, 에너지 및 광산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BTA는 카자흐스탄 내 무역금융시장의 30%를 차지하면서 증권, 보험, 자산관리, 리스 등의 종합금융서비스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그룹으로 현재 총 자산은 5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진 의】

◆ 한국수출입은행, 독일 부흥금융금고(KfW)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은 4월 14일(현지시각 4월

13일) 독일 수출신용기관인 독일부흥금융금고